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을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3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6. 19.

발 의 자 : 정을호 · 복기왕 · 안도걸
서삼석 · 조 국 · 진성준
신영대 · 조정식 · 문정복
김윤덕 · 신정훈 · 김문수
백승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,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그 금리는 「국채법」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가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“120퍼센트”에서 “110퍼센트”로 하향함으로써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려는 것임(안 제11

조 제2항).

법률 제 호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후단 중 “120퍼센트”를 “110퍼센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(대출 금리) ① (생략)	제11조(대출 금리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교육부장관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,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금리를 감안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금리는 「국채법」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<u>120퍼센트</u>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<u>110퍼센트</u> -- -----.